

맞벌이 부부의 출산의지 상승에 관한 연구*

구미성** · 장성호***

본 연구는 맞벌이 부부의 출산의지 상승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소재 거주하는 20대 이상의 출산 가능 연령의 결혼한 맞벌이 남성 150명, 맞벌이 여성 1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배부된 설문지는 302부이었고 회수된 설문지는 298부이었으며, 이 중에서 불성실하게 작성된 것을 제외하였고, 최종적으로 300부를 연구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를 사용하였으며, t검증, 일원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출산결정 요인의 차이분석은 성별에서 배우자의 출산의지, 배우자의 건강상태는 남성이 여성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출산기피는 성별에서는 모든 측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출산 기피요인 중에서 사회적 영역, 가치관 영역, 가족 영역, 건강 영역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출산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제적 변인에 따른 출산 요인의 차이분석에서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경제적 변인에 따른 출산기피 요인의 차이분석 중 본인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 사회적 영역, 가치관 영역, 가족 영역, 건강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맞벌이 부부가 직장과 육아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기 위해 연령과 학력, 성별, 경제적 상황에 따라 출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세밀한 출산 장려 정책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맞벌이 부부, 출산의지, 출산결정요인, 출산기피요인

논문 투고일: 2021. 1. 27. 최종심사일: 2021. 2. 27. 게재확정일: 2021. 3. 7.

* 이 논문은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 시립힐즈파크어린이집 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Koo Misung, 15, Sangwon 12-gil, Seongdong-gu, Seoul, Korea, E-mail: msk001@naver.com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저출산은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다. 출산억제정책이 시작된 지 20년만인 1980년대 중반은 인구대체를 위한 출산율은 2.1명 이하로 출산율 하락에 이르렀다. 그 후 계속되는 출산율 하락은 2001년에 1.30명으로 초저출산 상황이 되고, 2011년에 1.24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에 이른다. 이후 2017년 1.05명이라는 수치는 2005년의 1.08명 이후 최저치를 갱신하게 된다(신준섭·안형기, 2013).

합계출산율의 감소는 단순한 사회현상이 아니다. 저출산 현상의 장기적 지속은 한국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인구문제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저출산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해 경제발전 저하와 국가경쟁력 약화를 불러온다. 그 결과 노동력공급의 감소와 노동생산성의 저하, 노동인구의 감소에 따른 소비위축 투자위축 등을 일으켜 경제성장의 둔화시키게 된다(김경미, 2017). 그리고 개인의 생애주기에 다양한 복지 욕구가 늘어나게 되고,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노인 부부만의 단독으로 생활하는 기간과 배우자와의 사별 후 여성 노인이 홀로 지내는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는 노인에게 대한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 비용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로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혼 여성과 남성에게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마련은 중요하며, 이는 자녀 출산의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김민서, 2015). 2017년 새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4대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일과 생활균형, 안정되고 평등한 여성일자리 확충, 고용·주거·공교육강화, 한부모·임산부등의 가족지원을 세부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출산율, 출생아 수를 목표하는 정책보다는 미래를 보다 낙관적으로 전망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구조를 개혁하겠다는 의지이다.

또한 현대사회는 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어나고 핵가족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관심이 약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남성은 직장 중심, 여성은 가정 중심으로 성 역할의 구분이 벌어지며, 맞벌이가정의 증가는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직장과의 균형을 이루는 일·가

정양립의 문제는 남녀 모두의 문제로 확산되어가고 있다(김이진, 2016). 먼저 여성들은 가정보다는 본인의 자아가 실현되는 것에 더욱 매력을 느끼고, 여성의 경력단절은 취업과 승진의 기회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고 있다(김선녀, 2015).

일·가정양립이 어려워지면 출산을 저하와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현상을 초래하여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및 부양비의 증가를 가져오고,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존재한다(박정임, 2017). 일·가정양립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가 아직은 사회의 보편적인 분위기와 인식,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송미화, 2012).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OECD 회원국 중 높은 시간으로 남녀의 가사분담역할이 ‘공평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의 사람은 절반을 넘는 53.5%이지만, 현실적으로 공평하게 분담하는 비율은 남자 7.8%, 여자 17.7%이다. 저출산 문제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일·가정양립의 문제는 남녀 모두의 문제로 확산되어가고 있다(전은화, 2012).

또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출산에 관한 동향을 살펴보면(정은미, 2017), 출산의 원인이 결혼 가치관과 자녀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고, 서구적인 개인주의 확산에 따른 결혼은 선택이 되고 있다. 자녀 역시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는 존재가 아닌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는 존재 또는 자신의 삶에 방해가 되는 존재로 여겨 자녀를 낳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적 요인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변두영, 2015).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연구자들은 저출산의 원인, 출산장려정책, 결혼과 출산에 관한 인식문제 등 다양한 정책적 연구를 수행해 왔다(도미향, 2019).

앞선 연구들은 출산율에 관한 요인을 밝히는데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분석이 남성과 여성의 가치관이나 일·가정양립의 정책적 부분의 차이가 출산 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본 연구는 출산의 주체인 여성뿐 만 아니라, 그 배우자가 자녀 출산을 계획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저출산의 근본 원인이 되는 출산을 기피요인은 어떠한 것인지 함께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결혼한 가구 중 44.9%가 맞벌이 가구를 이루고 있기에 출산에 있어 맞벌이 가구의 출산율을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을 인구사회학적 부분과 경제적인 부분에서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출산결정요인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 문제 2.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출산기피요인에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20대 이상의 합계출산율에 부합하는 출산 가능 연령으로 결혼한 맞벌이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연구에 대한 목적을 설명하고 이해를 시킨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총 400명 중에서 설문에 부적절하게 응답한 대상을 제외하고 302명을 대상으로 자료분석하였고, 일반적 배경은 다음 <표 1>, <표 2>와 같다.

<표 1> 결혼한 맞벌이 부부의 일반적 배경

인구사회학적 특성		남성		여성	
		명	%	명	%
연령	25세 미만	0	0	4	2.6
	25세 이상~30세 미만	15	10	14	9.2
	30세 이상~35세 미만	34	22.7	51	33.6
	35세 이상~40세 미만	66	44	55	36.2
	40세 이상	35	23.3	28	18.4
	전체	150	100.0	152	100
학력	고등학교 졸업이하	11	7.3	22	14.5
	전문대학 졸업	34	22.7	39	25.7
	4년제 대학 졸업	85	56.7	73	48.0
	대학원 졸업	20	13.3	18	11.8
	전체	150	100.0	152	100.0

<표 2> 경제학적 요인에 따른 남녀 분포 차이분석

특성	남성		여성		
	명	%	명	%	
본인소득	150만원 미만	3	2.0	22	14.5
	150만원이상~250만원 미만	20	13.3	58	38.2
	250만원이상~350만원 미만	49	32.7	29	19.1
	350만원이상~400만원 미만	28	18.7	18	11.8
	400만원 이상	50	33.3	25	16.4
	전체	150	100.0	152	100.0
가구소득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1	0.7	1	0.6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8	5.3	12	7.9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19	12.7	22	14.5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48	32.0	29	19.1
	500만원 이상	74	49.3	88	57.9
	전체	150	100.0	152	100.0
종사상 지위	전문경영관리직	40	26.7	51	33.5
	사무기술직	73	48.7	43	28.3
	기능숙련공	4	2.6	3	1.9
	판매서비스직	16	10.7	20	13.2
	자영업사업가	11	7.3	13	8.6
	기타	6	4.0	22	14.5
	전체	150	100.0	152	100.0
근무하는 회사의 규모	중소기업	48	32.0	40	26.3
	중견기업	12	8	7	4.6
	대기업	23	15.4	16	10.5
	준공무원 및 공무원	20	13.3	15	9.9
	소기업	47	31.3	74	48.7
	전체	150	100.0	152	100.0

2. 측정도구

1) 출산의지 측정도구

본 연구를 위한 도구는 신영선(2012)이 사용한 도구를 하병규(2015)가 수정보완하여 사용

한 것을 본 연구에서 활용하였다. 연구의 하위요인은 출산결정요인 8문항,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 16문항, 인구사회학적 요인 3문항, 경제적 요인 4문항으로 총 31문항이었다. 설문지의 구성 및 신뢰도는 다음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3> 출산의지 측정

하위요인	문항 수	세부내용	신뢰도
출산 결정요인	8	본인의 직장생활, 주거환경, 건강상태, 출산의지, 직장생활, 건강 상태 등	.842
출산 기피요인	4	사회적 영역 : 아이를 돌볼 마땅한 사람이나 시간이 없어서 등	.898
	5	가치관 영역 : 보다 많은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등	.827
	3	가족영역 : 가정 내에서의 가사 및 양육이 평하게 분담되지 않아서 등	.776
	4	건강영역 :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본인의 건강문제 등	.779
합 계	24		

3. 자료수집 및 분석

1) 예비조사

본 연구의 예비조사는 설문지의 이해도와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연구자는 연구의 목적과 취지 및 설문내용과 변수들의 개념을 교육을 통해 숙지한 보육 전공 석사졸업생 연구보조원 2명과 함께 검토하였다. 예비조사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되거나 이해되지 않은 문항이 없으므로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2) 본조사

본 연구의 본 조사는 2018년 3월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총 400명의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맞벌이 부부에게 연구의 방법 및 절차를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총 400부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문항에 체크하거나 이해가 불확실한 체크 문항을 제외한 302부를 연구 자료로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연구문제 분석을 위하여 SPSS WIN version 23.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로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자료의 일반적인 특성과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남녀의 차이에 따른 출산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출산깊이 이유에 대해서는 t-검증과 ANOVA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출산결정요인의 차이분석

1) 성별에 따른 출산결정요인 차이

성별에 따른 출산결정요인을 살펴보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성별에 따른 출산결정요인의 차이분석

측정 변인	하위변인	남		여		t	P
		M	SD	M	SD		
출 산 결 정 요 인	본인의 직장생활	3.95	0.77	3.97	0.87	-.153	.879
	본인의 주거환경	3.92	0.90	3.92	0.89	-.032	.975
	본인의 건강상태	4.39	0.68	4.30	0.71	1.145	.253
	배우자의 출산의지	4.38	0.81	4.14	0.83	2.529*	.012
	배우자의 직장생활	3.79	0.98	4.18	0.79	-3.872***	.000
	배우자의 건강상태	4.50	0.60	4.31	0.76	2.521*	.012
	자녀양육과 돌봄가능성	4.33	0.71	4.28	0.80	.581	.562
	본인의 육아휴직가능성	3.83	1.06	4.03	0.98	-1.741	.083

***p<.001, *p<.05

본 연구 결과는 배우자의 출산의지는 남성의 경우에는 여성보다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2.529, p<.05$). 출산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배우자의 직장생활의 경우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3.872, p<.001$). 배우자의 건강상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t=2.521, p<.05$) 남성이 여성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연령에 따른 출산결정요인 차이

연령에 따른 출산결정요인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연령에 따른 출산결정요인의 차이분석

측정변인	하위변인	연령	M	SD	F	P	Scheffe'
출산 결정 요인	본인 직장 생활	25세 미만	4.750	.500	2.686*	.032	
		25세 이상~30세 미만	3.828	.759			
		30세 이상~35세 미만	4.129	.737			
		35세 이상~40세 미만	4.025	.736			
		40세 이상	3.825	.925			
	본인 주거 환경	25세 미만	4.500	.577	1.704	.149	
		25세 이상 30세 미만	3.793	.819			
		30세 이상 35세 미만	4.071	.923			
		35세 이상 40세 미만	3.926	.905			
		40세 이상	3.762	.817			
	본인 건강 상태	25세 미만	4.500	.577	.193	.942	
		25세 이상~30세 미만	4.379	.728			
		30세 이상~35세 미만	4.376	.771			
		35세 이상~40세 미만	4.314	.684			
		40세 이상	4.317	.591			
	배우자 출산 의지	25세 미만	4.000	.817	.622	.647	
25세 이상~30세 미만		4.379	.728				
30세 이상~35세 미만		4.306	.860				
35세 이상~40세 미만		4.182	.922				
	40세 이상	4.302	.613				

	25세 미만(a)	4.500	.577			
배우자 직장 생활	25세 이상~30세 미만(b)	3.931	.923	4.215**	.002	c>d c>e
	30세 이상~35세 미만(c)	4.294	.857			
	35세 이상~40세 미만(d)	3.860	.916			
	40세 이상(e)	3.794	.901			
	25세 미만	4.500	.577			
배우자 건강 상태	25세 이상~30세 미만	4.483	.738	.554	.696	
	30세 이상~35세 미만	4.376	.816			
	35세 이상~40세 미만	4.438	.644			
	40세 이상	4.302	.586			
	25세 미만	4.500	1.000			
본인 자녀 양육 돌봄 가능성	25세 이상~30세 미만	4.310	.712	.420	.794	
	30세 이상~35세 미만	4.271	.878			
	35세 이상~40세 미만	4.355	.740			
	40세 이상	4.222	.659			
	25세 미만	5.000	0.000			
육아 휴직 가능성	25세 이상~30세 미만	4.000	.845	2.313*	.048	
	30세 이상~35세 미만	4.082	1.060			
	35세 이상~40세 미만	3.934	1.014			
	40세 이상	3.730	.919			

***p<.001, **p<.01, *p<.05

연령에 따른 차이분석에 관하여 본인 직장생활은 25세 미만(M=4.750, SD=0.500)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30세 이상 35세 미만(M=4.129, SD=0.737), 35세 이상 40세 미만(M=4.025, SD=0.736), 25세 이상 30세 미만(M=3.828, SD=0.759), 40세 이상(M=3.825, SD=0.92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F=2.686, p<.05). 배우자 직장생활은 25세 미만(M=4.500, SD=0.577)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30세 이상 35세 미만(M=4.294, SD=0.857), 25세 이상 30세 미만(M=3.931, SD=0.923), 35세 이상 40세 미만(M=3.860, SD=0.916), 40세 이상(M=3.794, SD=0.90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F=4.215, p<.01). 이 중 사후 검증으로 Scheffe test를 실시하여 비교분석한 결과 30세 이상 35세 미만이 35세 이상보다 자녀를 갖는 결정을 할 때 배우자 직장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학력에 따른 출산결정요인 차이

학력에 따른 출산결정요인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학력에 따른 출산결정요인의 차이분석

측정변인	하위변인	최종학력	M	SD	F	P	Scheffe'
출 산 결 정 요 인	본인 직장 생활	고등학교 졸업 이하	4.091	0.723	.972	.406	
		전문대학 졸업	4.096	0.627			
		4년제 대학 졸업	3.930	0.845			
		대학원 졸업	4.053	0.868			
	본인 주거 환경	고등학교 졸업 이하	3.970	0.847	.816	.486	
		전문대학 졸업	4.041	0.807			
		4년제 대학 졸업	3.854	0.943			
		대학원 졸업	3.974	0.822			
	본인 건강 상태	고등학교 졸업 이하	4.182	0.769	.975	.405	
		전문대학 졸업	4.425	0.622			
		4년제 대학 졸업	4.329	0.727			
		대학원 졸업	4.368	0.589			
	배우자 출산 의지	고등학교 졸업 이하	4.030	0.728	2.827*	.039	
		전문대학 졸업	4.315	0.743			
		4년제 대학 졸업	4.323	0.784			
		대학원 졸업	4.079	1.148			
	배우자 직장 생활	고등학교 졸업 이하	3.970	0.810	1.305	.273	
		전문대학 졸업	4.164	0.898			
		4년제 대학 졸업	3.924	0.934			
		대학원 졸업	3.895	0.924			
	배우자 건강 상태	고등학교 졸업 이하	4.364	0.699	.476	.699	
		전문대학 졸업	4.452	0.727			
		4년제 대학 졸업	4.361	0.698			
		대학원 졸업	4.474	0.603			
	본인 자녀 양육돌봄 가능성	고등학교 졸업 이하	4.182	0.727	1.047	.372	
		전문대학 졸업	4.247	0.830			
		4년제 대학 졸업	4.310	0.765			
		대학원 졸업	4.474	0.647			
육아 휴직	고등학교 졸업 이하	3.970	0.918	1.222	.302		

가능성	전문대학 졸업	4.096	1.030
	4년제 대학 졸업	3.854	1.040
	대학원 졸업	4.079	0.784

*p<.05

학력에 따른 차이분석에서 배우자 출산의지는 4년제 대학 졸업(M=4.323, SD=0.784)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전문대학 졸업(M=3.415, SD=0.743), 대학원 졸업(M=4.079, SD=1.148)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 출산의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F=2.827, p<.05).

2. 출산기피요인의 차이분석

1) 성별에 따른 출산기피요인 차이

성별에 따른 출산기피요인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성별에 따른 출산기피 요인의 차이분석

측정 변인	하위변인	성별				t	P
		남성		여성			
		M	SD	M	SD		
출산 기피 요인	사회적 영역	2.30	1.23	2.58	1.23	-2.033*	.043
	가치관 영역	1.98	0.91	2.25	0.93	-2.630**	.009
	가족 영역	1.63	0.82	1.84	0.87	-2.225*	.027
	건강 영역	1.61	0.80	1.83	0.88	-2.351*	.019

**p<.01, *p<.05

출산기피이유에 따른 성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측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사회적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적 이유로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2.033, p<.05). 직장생활과 출산휴가, 양육휴가등을 제도권 속에서 잘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돌본다는 것은 사회활동에 지장을 충분히 받는 이유로 더 현실적인 부분에

서 여성이 남성보다 출산을 기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치관 영역($t=-2.630, p<.01$)과 가족영역($t=-2.225, p<.05$), 건강영역($t=-2.351, p<.05$)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연령에 따른 출산기피요인 차이

연령에 따른 출산기피요인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연령에 따른 출산기피요인의 차이분석

측정변인	하위변인	연령	M	SD	F	P	Scheffe'
출 산 기 피 요 인	사회적 영역	25세 미만	1.625	1.250	3.014*	.018	
		25세 이상~30세 미만	2.034	1.237			
		30세 이상~35세 미만	2.262	1.268			
		35세 이상~40세 미만	2.684	1.172			
		40세 이상	2.512	1.179			
	가치관 영역	25세 미만(a)	1.350	0.700	5.690***	.000	b<d c<d
		25세 이상~30세 미만(b)	1.786	0.896			
		30세 이상~35세 미만(c)	1.873	0.926			
		35세 이상~40세 미만(d)	2.355	0.909			
		40세 이상(e)	2.210	0.801			
	가족 영역	25세 미만	1.250	0.500	.960	.430	
		25세 이상~30세 미만	1.805	0.986			
		30세 이상~35세 미만	1.624	0.835			
		35세 이상~40세 미만	1.791	0.860			
		40세 이상	1.783	0.699			
	건강 영역	25세 미만(a)	1.000	0.000	3.536**	.008	c<e
		25세 이상~30세 미만(b)	1.767	0.837			
		30세 이상~35세 미만(c)	1.503	0.799			
		35세 이상~40세 미만(d)	1.758	0.850			
		40세 이상(e)	1.940	0.773			

*** $p<.001$, ** $p<.01$, * $p<.05$

출산기피요인 중 가치관 영역은 35세 이상 40세 미만($M=2.355, SD=0.909$)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40세 이상($M=2.210, SD=0.801$), 30세 이상 35세 미만($M=1.873,$

SD=0.926), 25세 이상 30세 미만(M=1.786, SD=0.896), 25세 미만(M=1.350, SD=0.70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F=5.690, p<.001). 사후 검증을 실시하여 비교분석한 결과 25세 이상 35세 미만의 경우보다 35세 이상 40세 미만의 경우가 가치관을 이유로 출산을 기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강 영역은 40세 이상(M=1.940, SD=0.773)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25세 이상 30세 미만(M=1.767, SD=0.837), 35세 이상 40세 미만(M=1.758, SD=0.850), 30세 이상 35세 미만(M=1.503, SD=0.799), 25세 미만(M=1.000, SD=0.00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F=3.536, p<.01). 사후 검증으로 Scheffe test를 실시하여 비교분석한 결과 30세 이상 35세 미만보다 40세 이상에서 건강을 이유로 출산을 기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배우자의 건강 상태 역시 평균값이 4.0이상이므로 평소에 건강상태를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음이다.

3) 학력에 따른 출산기피요인 차이

학력에 따른 출산기피요인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표 9>와 같다.

<표 9> 학력에 따른 출산기피 요인의 차이분석

측정변인	하위변인	최종학력	M	SD	F	P	Scheffe'
출산 기피 요인	사회적 영역	고등학교 졸업 이하	2.439	1.171	.942	.421	
		전문대학 졸업	2.260	1.228			
		4년제 대학 졸업	2.503	1.261			
		대학원 졸업	2.625	1.101			
	가치관 영역	고등학교 졸업 이하	2.224	0.894	2.681*	.047	
		전문대학 졸업	2.055	0.912			
		4년제 대학 졸업	2.043	0.929			
		대학원 졸업	2.484	0.823			
	가족 영역	고등학교 졸업 이하	1.869	0.924	1.278	.282	
		전문대학 졸업	1.621	0.821			
		4년제 대학 졸업	1.722	0.846			
		대학원 졸업	1.904	0.684			
건강 영역	고등학교 졸업 이하	1.758	0.683	1.297	.276		
	전문대학 졸업	1.572	0.821				

4년제 대학 졸업	1.733	0.871
대학원 졸업	1.882	0.755

*p<.05

출산기피요인 중 가치관 영역에서 대학원 졸업(M=2.484, SD=0.823)의 경우 가치관에 따른 출산기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하(M=2.224, SD=0.894), 전문대학 졸업(M=2.055, SD=0.912), 4년제 대학 졸업(M=2.043, SD=0.92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F=2.681, p<.05).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맞벌이 부부의 출산의지에 대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출산결정 요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서는 배우자의 출산의지, 배우자의 건강상태는 남성이 여성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출산에 있어 출산의지와 건강상태는 아내의 가치관이나 출산하기 적절한 건강에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출산기피 요인의 차이 분석에 따르면 성별의 차이에서는 모든 측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사회적 영역, 가치관 영역, 가족 영역, 건강 영역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출산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영역에서는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하여 본인의 사회 활동에 지장이 있을까’,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자녀들의 장래가 염려스러워서’의 문항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가치관 영역에서는 ‘보다 많은 여가를 즐기 위해서’, ‘계획한 만큼 자녀를 다 낳아서’의 문항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가족 영역에서 ‘가정내에서의 가사 및 양육이 공평하게 분담되지 않아서’의 문항에서 차이가 났고, 건강 영역에서는 ‘나이가 많아서’ 문항이 차이가 났다. 자녀출산과 양육이 여성에게 주로 책임지워지고 출산휴가나 양육휴가의 제도의 실행이 미진한 현실이 여성의 사회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여성이 남성보다 출산을 기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결혼과 출산 후에도 보다 많은 여가를 즐기고 자기개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출산 기피의 요인이 되는 것으

로 보인다. 연령에 따른 출산기피요인 차이를 살펴보면 가치관 영역에서 35세 이상 40세 미만만이 가치관을 이유로 출산을 기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녀출산이 결혼으로 인한 당연함보다는 다자녀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고 그 가치가 높아질 때 출산의지가 강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건강 영역에서는 30세 이상 35세 미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사후 검증으로 Scheffe test를 실시하여 비교분석한 결과 30세 이상 35세 미만보다 40세 이상에서 건강을 이유로 출산을 기피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출산 계획 외에 평상시 건강상태를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연령을 낮춤으로서 무자녀율을 낮출 수 있고 한자녀의 출산에서 다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출산장려가 필요하다.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가면서 과도한 결혼식 문화, 즉 비용이나 의식, 절차 등을 포함한 과정에서 발생되어지는 비용과 노동력의 절감이 필요하다.

둘째, 무자녀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모됨에 대한 가치관을 뒷받침되어야 출산의지가 높아지고, 자녀를 출산하고 돌보는 과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노동력과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어야 출산의지가 강해질 것이다. 또한 맞벌이 여성의 경우 자기개발 기회가 제공되어지고, 자녀 출산 후 노동시장에서의 경력 단절에 의한 마찰을 줄이기 위한 출산장려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직장생활과 가정생활과 양육을 함께 해야 되는 맞벌이 부부에게는 자녀 돌봄은 큰 부담이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의 개소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에서 하루 8-9시간의 근무시간은 자녀를 돌볼수 있는 시간적인 여건이 어렵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만큼은 직장에서의 근로시간단축이 필요하고 양육 휴가 등을 눈치보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이 필요하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나머지 근무시간을 사업주에게 부담을 줄수는 없다. 이 부분을 국가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자녀 양육에 있어 사교육비는 천문학적 규모로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크나큰 사회 문제 중 하나이다. 사교육비는 국민의 삶의 질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안으로 국민복지라는 의미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되면 교육기회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고, 계층 간 교육격차가 심화되며, 국민의 삶의 질도 저하되기 쉽다. 반면 사교육비 부담이 감소되면 계층 간 교육격차가 완화될 수 있고,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어, 공교육도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개연성이 크다. 즉, 맞벌이 부부에게 있어 자녀 출산의지를 상승시키는 것은 자녀를 낳고 싶은 욕구가 발현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또한 결혼 후 자녀출산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는 예전과 달리 현시대에서는 그렇

지 않다. 부모됨에 대한 가치가 뒷받침이 되어야 만이 출산의지가 높아진다. 저출산 문제에 관한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에 주력하여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저출산 대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자녀가치관과 결혼가치관에 친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한다.

참 고 문 헌

- 김경미(2017). 맞벌이가정의 일·가정양립과 행복수준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민서(2015).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출산의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선녀(2015). 첫 아이 출산경험이 둘째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이진(2016). 유자녀 가구의 후속출산 계획 결정 요인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도미향(2019). 천안시민의 임신·출산 및 자녀양육 관련 실태와 출산장려지원정책에 관한 인식 및 태도 연구. 부모교육연구, 16(1), 5-30.
- 마미정(2008). 맞벌이부부의 둘째 자녀 출산의도와 출산기피 요인 탐색 연구. 부모교육연구, 5(1), 75-116.
- 박정임(2017). 맞벌이 가정의 부모교육 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변두영(2015). 기혼남녀의 출산의도 영향 요인 분석: 계획적 행동이론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
- 송미화(2012). 한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변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준섭·안형기(2013). 사회복지조직의 혁신성 효과분석 연구. 한국행정학회, 47(1), 149-170.
- 전은화(2012). 직장 기혼 여성의 출산의도 영향 요인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은미(2017).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부모교육연구, 14(1), 5-19.
- Hamner, T. J. & Turner, P. H. (1996). *Parenting in contemporary society*.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 Merrit, Richard L. (1971). *Systematic Approaches to Comparative Politics*. Chicago: McNally.
- Sleeboos, J. (2003). "Low Fertility Rates in OECD Countries: Facts and Policy Responses".

Abstract

A study on the Increase in Pregnancy Will of Two-income Couples

Koo, Mi sung* · Jang, Sung H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crease in the pregnancy will of two-income couples. The survey was conducted on fertile two-income couples who were over the age of 20 years and lived in Seoul. A total of 318 respondents were included in this study from among the 400 distributed questionnaires. Excluding insincere answers, 302 completed questionnaires were used as research data in the final analyses. SPSS, t-test, and one-way ANOVA analysis were used to analyze data. The result of this study first was that the difference analysis of factors in determining childbirth showed that men consider their spouse's pregnancy will and spouse's health more importantly compared to the women. Second,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genders in childbirth avoidance. Among the factors for childbirth avoidance, women avoided childbirth more than the men in terms of social values and in family and health areas. Third, the average monthly income of a person showed important statistical differences in the analysis of differences in childbirth factors due to economic variables. Fourth, the difference analysis of factors in avoiding childbirth due to economic variables show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statistical differences in the social values and in the family and health areas depending on the monthly average income of a person. This research result is expected to provide detailed policies which can directly influence the promotion of childbirth depending on age, educational background, gender, and financial situation so that two-income couples are able to coexist with their work and parenting.

Key Words: Two-Income Couples, Pregnancy Will

* City Hills-Park Day-Cary Center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onkuk University